

청소년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이 규범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Individual, Family, Friend and School Variables on Deviant Behaviors among Adolescents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허 은 경
교 수 이 경 님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
Instructor : Eun-Kyung Hur
Professor : Kyung-Nim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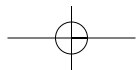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t individual, family, friend and school variables that affect adolescents' deviant behaviors. The sample consisted of 897 eleventh grade adolescents. Statistics and methods used for the data analysis were Cronbach's alpha, two-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Male and female students' deviant behavior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nsation seeking traits, deviant behaviors by peer groups, school maladjustment, and maltreatment-experiences from parents, but a negative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s with parents. In female students', deviant behaviors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The important variables predicting deviant behaviors were deviant behaviors of peer groups, sensation seeking traits, emotional maltreatment-experience, kind of high-school and school maladjustment for male students, compared to deviant behaviors of peer groups, kind of high-school, sensation seeking traits and school maladjustment for female students'.

주제어(Key Words): 규범적 문제행동(deviant behaviors), 자극추구성향(sensation seeking traits), 부모와의 의사소통(communications with parents), 학교부적응(school maladjustment), 친구집단의 문제행동(deviant behaviors of peer groups)



1. 서론

청소년기는 독립된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로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달단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정옥분, 1998).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 등 모든 발달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부모, 교사등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기도 한다. 이러한 시기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제행동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은 발달과정상 일시적인 현상으로 대부분의 경우 성장함에 따라 감소하지만,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들은 성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Loeber, 1982).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법적 기준이외에 사회적 규범과 가치, 그리고 도덕 및 관습적으로 청소년에게 문제되는 행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행동의 범위는 명확하지도 않고,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다(정우식, 1986).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문제행동이나 비행, 범죄 등이 구분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포괄적으로 문제행동의 용어로 연구되어지고 있다(임성택, 김혜진, 2001).

최근 소년 범죄는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소년범죄는 1997년에 비하여 15.9%가 감소되고 있는 반면(청소년 보호위원회, 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경향은 매년 25%의 증가율이 보고 되고 있다(청소년 백서, 1996). 이처럼 청소년의 범죄와 문제행동은 그 범위나 내용도 구분되고 감소 및 증가율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일탈청소년이 아닌 일반청소년의 문제행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면에서도 관습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규범적 문제행동이 대부분으로 밝혀지고 있다(청소년 백서, 1999). 그러므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범죄 및 비행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범적 문제행동이란 청소년의 문제행동 중 법률적으로 제재를 받는 범죄행동 이외의 사회적, 도덕적으로 문제시 되는 문제행동이다(임성택, 2002). 즉 규범적 문제행동은 청소년의 지위상 문제가 되는 행동과 법에는 어긋나지 않으나, 사회적 규범상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문제행동들이다.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최근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사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관련된 변인을 확인하는 일은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소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포함한 규범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은 청소년의 개인특성,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연구되는 변인으로 성을 들 수 있다. 대체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남학생이 더 많으나, 최근 여학생의 문제행

동은 종래에 많이 보였던 비폭력적인 성격의 문제행동, 단순한 절도나 성과 관련된 문제행동의 유형에서 벗어나 보다 폭력적이며 남학생과 크게 차이가 없는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되고 있다(김인순, 민문숙, 1999). 이는 최근 보도된 청소년 문제행동의 성별 증가율과 그 내용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성별현황은 2001년 남학생이 84.2%로 1997년도에 비해 7.4%낮아진 반면, 여학생은 15.8%로 1997년도에 비해 7.4% 높아졌으며(청소년 백서, 2002), 2005년 현재 학교 폭력 중 금품갈취, 폭행과 같은 문제행동은 여학생의 경우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KBS뉴스, 2005. 4. 26), 여학생의 이러한 문제행동은 남학생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비행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에 비해 비행의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되고 있다(Kaplan, 1980).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은 부적상관을 보이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김인순, 민문숙, 1999; 유성경, 2000).

또한 자극추구성향이 높은 개인은 높은 수준의 외적자극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자극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높다(Zuckerman, 1978). 이에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자극추구성향이 높은 개인은 조급하며,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문제행동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지고 있으며(오미경, 1997), 자극추구성향이 높은 청소년이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김정만, 2001; Newcomb & McGee, 1991). 이처럼 자아존중감과 자극추구성향의 개인특성과 문제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한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규범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표출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이외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가족 변인이다.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성적 성숙과 함께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로 인하여 부모-자녀간의 대화가 힘들며, 세대 차이를 느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으로 되기 쉬워 문제행동을 표출할 가능성도 높다(김수현, 2003). 이를 검증한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님과 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문제행동의 발생률이 적게 나타나며(김진희, 1989; 송유진, 2003), 부모님과 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류애란, 2004; 민하영, 1991),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간의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

고 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다르게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부모와 청소년간의 의사소통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을 살펴봄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변인으로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을 들 수 있다. 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자녀나 가족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Kaufman & Ziger, 1987). 또한 가정에서 학대받은 청소년은 다양한 비행에 빠져 들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으므로(Zingeraf, Leiter, Myer, & Johnsen, 1993),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규범적 문제행동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의 또래집단간의 관계는 다른 어떠한 사회관계보다 밀착됨으로써 청소년들은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또래들의 많은 행동을 동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친구집단의 문제행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난다는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김수현, 2003; 정유미, 1997).

학교는 청소년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습과 생활의 공간인 동시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회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환경이다.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부적응을 보이는 경우 문제행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준호, 1989).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학교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태도들은 공부기 어려워, 제한된 규칙이 싫어서, 흥미가 없어서, 열등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박성희, 2003). 또한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더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박성희, 2003).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은 규범적 문제행동의 중요한 예인변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학교계열별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차이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학교계열의 차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실업계 고등학생이 문제행동을 더 많이 표출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송유진, 2003; 유영완, 2004). 따라서 학교계열에 따라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성차가 있음이 일관되게 보고 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검토한 연

구는 드물었으며, 더욱이 여학생의 문제행동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그 양상이 심각한 우려를 보인다는 최근의 보고를 감안하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관련변인에 대한 성별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절실하다고 본다.

이처럼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종합하면, 자아존중감, 자극추구성향의 개인 변인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의 가족 변인,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의 친구 변인, 그리고 학교부적응, 학교계열의 학교 변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의 영향이 각각 개별적으로 검증되었으나 이들 변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나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에 따라 살펴보는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이 성과 학교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과 규범적 문제행동간의 관계와 이들 변인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성별에 따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어떠한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고 규범적 문제행동을 개선하고 감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대처방안에 기초 자료가 되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성과 학교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개인(자극추구성향, 자아존중감), 가족(부모와의 의사소통,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친구(친구집단의 문제행동) 및 학교(학교부적응) 변인과의 관계는 성에 따라 어떠한가?
3.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성에 따라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각 2개교씩 4개교의 2학년에 재학 중인 89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인문계 고등학생이 466명

(52%), 실업계 고등학생이 431명(48%)이고, 남학생이 418명(46.5%), 여학생이 479명(53.4%)이었다.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문제행동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연령을 중학교 후기와 고등학교 시기인 만 14-20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최상문, 2003). 연구대상의 아버지 연령은 41-50세가 634명(70.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1세 이상이 159명(17.7%)이었으며, 어머니 연령은 41-50세가 717명(7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세 이하가 70명(7.8%)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444명(49.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졸업 이상이 298명(23.7%)이었으며,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522명(58.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졸이 170명(18.9%)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상공업, 서비스업이 343명(38.2%)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 기술직이 216명(24.1%)이었으며, 어머니의 취업 유 무는 취업 무 497명(55.3%), 취업 유 339명(37.8%)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소득은 101-200만원이 240명(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1-300만원이 218명(24.3%)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규범적 문제행동 척도와 개인 변인, 가족 변인, 친구변인, 학교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및 배경변인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규범적 문제행동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성택(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표출형 문제행동 4 문항, 유혹/풍속형 문제행동 10문항, 권위도전형 문제행동 9 문항으로 모두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출형 문제행동은 “질은 화장을 한 적이 있다.” 등의 내용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며, 유혹/풍속형 문제행동은 “성인용 노래방(단란 주점)에 가 본적이 있다.” 등의 내용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며, 권위도전형 문제행동은 “선생님께 반항한 적이 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내용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1학기 동안의 빈도를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전혀 없다’는 0점, ‘1회’는 1점, ‘2-3회’는 2점, ‘4-5회’는 3점, ‘6회 이상’은 4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하위영역 점수를 합하여 규범적 문제행동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범위는 0점에서 9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규범적 문제행동의 경험 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1로 나타났다.

2) 개인 변인

(1)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77로 나타났다.

(2) 자극추구성향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현정(1997)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극추구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75로 나타났다.

3) 가족 변인

(1) 부모와의 의사소통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nes 과 Olson(1985)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를 김성일과 김남희(2001)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사소통을 분리하여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82,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85로 나타났다.

(2) 학대경험

청소년의 신체적 학대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 (1979)가 제작한 CTS(Conflict Tactics Scale)중 폭력척도를 수정·보완한 권자영(1991)의 ‘신체적 학대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학대경험의 측정은 신영화(1986)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방임경험의 측정은 아동학대 국제 상임 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중심으로 홍은주(1998)가 수정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체적 학대 5문항, 정서적 학대 5문항, 방임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전혀 없었다’ 1점, ‘가끔 그랬다’ 2점, ‘자주 그랬다’ 3점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신체적 학대 .76, 정서적 학대 .73, 방임 .75로 나타났다.

3) 친구 변인

(1) 친구집단의 문제행동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수현(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없다' 1점, '1명'은 2점, '2-3명'은 3점, '4-5명'은 4점, 6명 이상은 5점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많을수록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2로 나타났다.

4) 학교 변인

(1) 학교부적응

학교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기하(1997)의 '학교생활 부적응' 척도에서 대표된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영역, 규칙준수관계, 이성관계의 각 4문항씩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항상 그렇다'는 4점으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의 점수를 합하여 학교부적응의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부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2004년 12월 28일에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와 연구절차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시내 실업계 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2학년에 재학 중인 58명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 각 측정도구의 문항은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절차상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2005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 시에 소재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 모두 4개교를 임의 표집하여 2학년 32반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과목담당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을 설명한 후 모두 992명의 학생들에게 질문지가 배부되고, 그 자리에서 회수되었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897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PSS Win 10.0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먼저 연구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은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경우 단순 주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는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3은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검토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성과 학교계열에 따른 차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이 성과 학교계열과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과 학교계열의 규범적 문제행동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나타난 규범적 문제행동의 점수가 성과 학교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 점수는 성(F=16.17, p<.001)과 학교계열(F=214.44, p<.001)의 주효과와 성과 학교계열의 상호작용효과(F=20.24,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도식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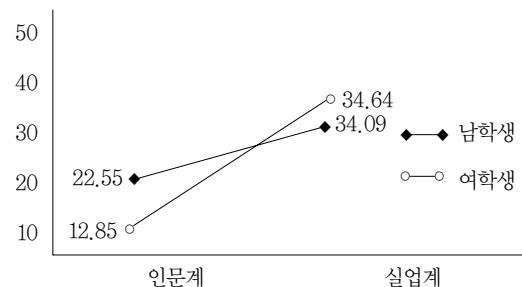
<표 1> 성과 학교계열에 따른 규범적 문제행동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 | 남 학생 | | 여 학생 | | 합 계 | |
|-----|-------|-------|-------|-------|-------|-------|
| | M | SD | M | SD | M | SD |
| 인문계 | 22.55 | 13.46 | 12.85 | 11.51 | 17.82 | 13.44 |
| 실업계 | 34.09 | 21.13 | 34.65 | 20.21 | 34.41 | 20.58 |
| 합 계 | 27.49 | 18.07 | 24.31 | 19.90 | 25.79 | 19.12 |

<표 2> 성과 학교계열에 따른 규범적 문제행동 점수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 변량원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
| 성 별 | 4618.291 | 1 | 4618.291 | 16.17*** |
| 학교계열 | 61245.749 | 1 | 61245.749 | 214.44*** |
| 성별*학교계열 | 5781.162 | 1 | 5781.162 | 20.24*** |
| 오 차 | 255047.6 | 893 | 285.608 | |
| 합 계 | 924488.0 | 897 | | |

***p<.001



<그림 1>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성과 학교계열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1〉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성과 학교계열의 상호작용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주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림 1〉에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구분하여 성차이를 살펴본 결과 규범적 문제행동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t=8.339$, $p<.001$),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270$, $p>.05$). 즉 규범적 문제행동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으나,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학교계열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규범적 문제행동은 남학생($t=-6.806$, $p<.001$)과 여학생($t=-14.286$, $p<.001$) 모두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성에 관계없이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규범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청소년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과 규범적 문제행동의 관계

1) 남학생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과 규범적 문제행동의 관계

남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자극추구성향과 자아존중감의 개인변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신체학대, 정서학대와 방임의 가족변인,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의 친구변인 및 학교부적응의 학교 변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남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개인변인인

자극추구성향($r=.437$, $p<.001$), 가족변인인 신체학대($r=.250$, $p<.001$), 정서학대($r=.411$, $p<.001$), 방임($r=.396$, $p<.001$), 친구변인인 친구집단의 문제행동($r=.668$, $p<.001$), 학교변인인 학교부적응($r=.439$, $p<.001$)과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가족변인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r=-.098$, $p<.05$), 아버지와의 의사소통($r=-.139$, $p<.01$)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경험이 많을수록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학교부적응이 높을수록 많이 나타났으며, 또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적게 나타났다.

2) 여학생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과 규범적 문제행동의 관계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자극추구성향과 자아존중감의 개인변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신체학대, 정서학대와 방임의 가족변인,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의 친구변인 및 학교부적응의 학교 변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에 의하면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개인변인인 자극추구성향($r=.503$, $p<.001$), 가족변인인 신체학대($r=.379$, $p<.001$), 정서학대($r=.361$, $p<.001$), 방임($r=.198$, $p<.001$), 친구변인인 친구집단의 문제행동($r=.801$, $p<.001$), 학교변인인 학교부적응($r=.583$, $p<.001$)과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개인변인인 자아존중감($r=-.119$, $p<.01$), 가족변인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r=-.204$, $p<.001$), 아버지와의 의사소통($r=-.115$, $p<.05$)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경험이 많을수록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또한 학교

〈표 3〉 남학생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과 규범적 문제행동의 관계

| 규범적 문제행동 | 개인 변인 | | 가족 변인 | | | | | 친구변인 | 학교변인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437*** | -.031 | -.098* | -.139** | .250*** | .411*** | .396*** | .668*** | .439*** |

* $p<.05$, ** $p<.01$, *** $p<.001$

1. 자극추구성향 2. 자아존중감 3.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4.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5. 신체학대 6. 정서학대 7. 방임 8. 친구집단의 문제행동 9. 학교부적응

〈표 4〉 여학생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과 규범적 문제행동의 관계

| 규범적 문제행동 | 개인 변인 | | 가족 변인 | | | | | 친구변인 | 학교변인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503*** | -.119** | -.204*** | -.115* | .379*** | .361*** | .198*** | .801*** | .583*** |

* $p<.05$, ** $p<.01$, *** $p<.001$

1. 자극추구성향 2. 자아존중감 3.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4.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5. 신체학대 6. 정서학대 7. 방임 8. 친구집단의 문제행동 9. 학교부적응

부적응이 높을수록 많이 나타났으며, 개인변인인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가족변인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적게 나타났다.

3. 청소년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이 규범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가정인 다중공선성의 위반 여부와 전반적인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각 독립 변인 간 상관관계수가 남학생 .597, 여학생 .574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의 문제는 존재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개인 변인, 가족 변인, 친구 변인, 학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을 독립변인 군으로 묶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남학생<표 6> 여학생<표 7>과 같다.

1) 남학생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이 규범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표 6>에 의해 1단계에서 개인 변인인 자극추구성향, 자아존중감이 남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표 5>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 남/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M(SD) |
|--------|------------|---------------|---------------|---------------|----------------|--------------|--------------|--------------|----------------|----------------|---------------|
| 1 | | .183*** | -.125** | -.144** | -.054 | .234*** | .218*** | .071 | .498*** | .476*** | .53(.500) |
| 2 | -.069 | | -.094* | -.234*** | -.171*** | .296*** | .276*** | .157*** | .492*** | .520*** | 36.86(7.741) |
| 3 | .030 | -.163** | | .224*** | .303*** | -.193*** | -.152** | -.268 | -.119** | -.332*** | 28.00(5.403) |
| 4 | -.118* | -.094 | .299*** | | .415*** | -.260*** | -.249*** | -.288*** | -.166*** | -.242*** | 65.65(9.966) |
| 5 | .012 | -.261*** | .349*** | .466*** | | -.299*** | -.223*** | -.216*** | -.133** | -.145** | 58.96(11.099) |
| 6 | .132** | .026 | -.145** | -.193*** | -.144** | | .574*** | .265*** | .369*** | .320*** | 5.93(1.499) |
| 7 | .096 | .266*** | -.147** | -.176*** | -.196** | .439*** | | .279*** | .333*** | .302*** | 6.27(1.617) |
| 8 | .132** | .253*** | -.215*** | -.202*** | -.272*** | .483*** | .597*** | | .153** | .260*** | 5.99(1.753) |
| 9 | .232*** | .292*** | .043 | -.085 | -.135** | .160** | .183*** | .245*** | | .552*** | 37.70(14.583) |
| 10 | .244*** | .247*** | -.194*** | -.217*** | -.144** | .293*** | .244*** | .245*** | .352*** | | 38.30(10.616) |
| M (SD) | .43 (.495) | 42.11 (7.743) | 28.50 (5.599) | 63.21 (9.651) | 57.97 (10.536) | 5.79 (1.657) | 6.49 (2.073) | 6.32 (2.086) | 47.11 (16.384) | 41.92 (11.822) | |

*p<.05, **p<.01, ***p<.001

1.학교계열 2.자극추구성향 3.자아존중감 4.어머니와의 의사소통 5.아버지와의 의사소통 6.신체학대 7.정서학대 8.방임 9.친구집단의 문제행동 10.학교부적응

<표 6> 남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 변인 | 변인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
| |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 개인 변인 | 자극추구성향 | 1.036 | .444*** | .842 | .361*** | .509 | .219*** | .530 | .228*** |
| | 자아존중감 | .133 | .041 | .336 | .104* | .051 | .016 | .092 | .029 |
| 가족 변인 |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 | | -.046 | -.025 | -.004 | -.002 | .070 | .037 |
| |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 | | .045 | .026 | .094 | .055 | .052 | .030 |
| | 신체학대 | | | .991 | .091 | .441 | .041 | .103 | .010 |
| | 정서학대 | | | 1.716 | .197*** | 1.702 | .196*** | 1.616 | .186*** |
| 방 임 | | | 1.407 | .162** | .738 | .085 | .632 | .073 | |
| 친구 변인 | 친구집단의 문제행동 | | | | | .600 | .545*** | .515 | .467*** |
| 학교 변인 | 학교계열 | | | | | | | 6.157 | .169*** |
| | 학교부적응 | | | | | | | .193 | .126*** |
| 상 수 | | 3.092 | | -20.010 | | -24.171 | | -31.934 | |
| ΔR ² | | | | .128 | | .254 | | .044 | |
| R ² | | .193 | | .321 | | .575 | | .619 | |
| F | | 49.554*** | | 27.562*** | | 68.824*** | | 65.858*** | |

가변인 처리 : 인문계 0, 실업계 1

*p<.05, **p<.01, ***p<.001

〈표 7〉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 변인 |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
| |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 개인 변인 | 자극추구성향 | 1.274 | .496*** | 1.049 | .409*** | .324 | .126*** | .286 | .111** |
| | 자아존중감 | -.266 | -.072 | -.102 | -.028 | -.013 | -.004 | .128 | .035 |
| 가족 변인 |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 | | -.071 | -.036 | -.072 | -.036 | -.032 | -.016 |
| |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 | | .127 | .071 | .094 | .052 | .058 | .032 |
| | 신체학대 | | | 2.417 | .183*** | .639 | .048 | .472 | .036 |
| | 정서학대 | | | 1.553 | .125** | .641 | .052 | .528 | .043 |
| | 방입 | | | .544 | .048 | .549 | .048 | .545 | .048 |
| 친구 변인 | 친구집단의 문제행동 | | | | | .955 | .700*** | .788 | .578*** |
| 학교 변인 | 학교계열 | | | | | | | 6.700 | .168*** |
| | 학교부적응 | | | | | | | .199 | .106** |
| 상수 | | -15.191 | | -41.741 | | -35.254 | | -41.440 | |
| ΔR^2 | | | | .074 | | .341 | | .034 | |
| R^2 | | .258 | | .332 | | .673 | | .707 | |
| F | | 82.642*** | | 33.092*** | | 120.058*** | | 112.091*** | |

가변인 처리: 인문계 0, 실업계 1

p<.01, *p<.001

변인은 자극추구성향($\beta=.444$, $p<.001$)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19.3%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가족 변인이 남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단계 회귀분석 모델에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입의 가족변인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회귀분석의 결과, 정서학대($\beta=.197$, $p<.001$), 방입($\beta=.162$, $p<.01$)이 남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32.1% 설명하였으며, 1단계보다 12.8% 증가하였다.

3단계에서는 친구 변인이 남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단계 회귀분석 모델에 친구 집단의 문제행동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 회귀분석의 결과, 친구집단의 문제행동($\beta=.545$, $p<.001$)이 남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57.5% 설명하였으며, 2단계보다 25.4% 증가하였다.

회귀분석의 마지막 4단계에서는 학교 변인이 남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3단계 회귀분석 모델에 학교계열, 학교부적응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계열($\beta=.169$, $p<.001$), 학교부적응($\beta=.126$, $p<.001$)이 남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남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61.9%를 설명하였으며, 3단계보다 4.4% 증가하였다. 최종적으로 남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친구 변인인 친구집단의 문제행동($\beta=.467$, $p<.001$)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이며, 자극추구성향($\beta=.228$, $p<.001$), 정서학대경험($\beta=.186$, $p<.001$), 학교계열($\beta=.169$, $p<.001$), 학교부적응($\beta=.126$, $p<.001$)의 순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여학생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이 규범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표 7〉에 의하면 1단계에서 개인 변인인 자극추구성향, 자아존중감이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자극추구성향($\beta=.496$, $p<.001$)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25.8%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가족 변인이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단계 회귀분석 모델에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입의 가족변인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회귀분석의 결과, 신체학대($\beta=.183$, $p<.001$), 정서학대($\beta=.125$, $p<.01$)가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33.2% 설명하였으며, 1단계보다 7.4% 증가하였다.

3단계에서는 친구 변인이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단계 회귀분석 모델에 친구 집단의 문제행동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친구집단의 문제행동($\beta=.700$, $p<.001$)이 여학생의 규범

적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67.3%를 설명하였으며, 2단계보다 34.1%증가하였다.

회귀분석의 마지막 4단계에서는 학교 변인이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3단계 회귀분석 모델에 학교계열, 학교부적응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계열($\beta=.168, p<.001$), 학교부적응($\beta=.106, p<.01$)이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70.7%를 설명하였으며, 3단계보다 3.4%증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친구 변인인 친구집단의 문제행동($\beta=.578, p<.001$)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이며, 학교계열($\beta=.168, p<.001$), 자극추구성향($\beta=.111, p<.001$), 학교부적응($\beta=.106, p<.001$)의 순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성과 학교계열에 따른 차이와 규범적 문제행동과 자극추구성향과 자아존중감의 개인변인,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학대경험의 가족변인,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의 친구변인, 학교부적응과 학교계열의 학교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학교계열에 따라 성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으나,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계열 별로 살펴보는 않았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규범적 문제행동 및 문제행동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김희화, 김경연, 2000; 임성택, 2002), 남자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행이 가장 많다는 연구(최상문, 2003)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은 종합하여 볼 때,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학교계열에 따른 성별차이에 대한 결과는 단정 지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규범적 문제행동의 학교계열에 따른 성별차이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결과가 일반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성에 상관없이 학교계열에 따른 차이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실업계 고등학교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더 많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더 많은 문제행동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라민오, 2001; 이정남, 2003; 이현정, 1997)와 일치하였다. 이로써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남학생과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비행이 많다는 연구(김정만, 2001; 이현정, 1997)와 일치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자극추구성향이 높은 개인은 높은 수준의 외적자극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자극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행동을 일으킬 경향이 높다(Zuckerman, 1978). 따라서 자극추구성향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규범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다. 이로써 성에 관계없이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규범적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규범적 문제행동이 많았으나 남학생의 경우는 자아존중감과 규범적 문제행동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난다는 연구(박미선, 2004; 심희옥, 1998; Kaplan, 1978, Owens, 1994)와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비행은 대체로 관계가 없다는 연구(김희화, 김경연, 2000)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로써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관계는 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므로 자아존중감이 규범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에 따른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송유진, 2003; 조운정, 2000)와 일치하였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와의 충분한 대화 및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저해를 가져오며 이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증가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감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깃든 자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부모로부터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경험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학대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비행 성향이 많다는 연구(Kinard, 1980),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들은 청소년이 되어 비행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엄명용, 2001)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이처럼 부모로

부터의 학대경험과 문제행동의 일치된 결과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규범적 문제행동의 표출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집단의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비행이 많이 나타났다는 연구(이현정, 1997), 친구들의 문제행동 경험이 많을수록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정유미, 1997)와 일치하였다. 이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와의 접촉은 비행학습의 기회가 많아지며, 실제 비행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로써 성에 관계없이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규범적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학교에서 부적응할수록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관계에 부적응할수록 비행이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박성희, 2003), 학교에 대한 흥미가 높을수록 비행이 적게 나타난다는 연구(권태철, 2002)와 교우관계에 부적응할수록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주옥한, 1995)와 맥락을 같이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학교부적응과 규범적 문제행동은 의미있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친구 변인인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청소년기의 친구관계의 중요성과 이 시기의 특징인 친구동조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관계를 가족이나 교사관계보다 더 중요시하므로 친구관계는 청소년의 심리특성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없이 친구집단의 많은 행동을 동조하고 모방하여 학습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로써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소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는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고 교우관계에 대한 세심한 지도와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건전한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바람직한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다음, 규범적 문제행동은 남학생의 경우 자극추구성향, 정서학대경험, 학교계열, 학교부적응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학교계열, 자극추구성향과 학교부적응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극추구성향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은 성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규범

적 문제행동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의 정서학대경험은 남학생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여학생에게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가정에서의 정서학대경험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계열이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공통적으로 규범적 문제행동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청소년이 규범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에 관계없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청소년이 인문계 고등학교의 청소년보다 규범적 문제행동이 더 많다는 앞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부적응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으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남, 여 청소년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에 관계없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청소년이 인문계 고등학교 보다 규범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표출한다. 둘째, 남, 여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은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극추구성향,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학교부적응은 남, 여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다. 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남, 여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규범적 문제행동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여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관계 및 그 경로를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경험정도는 자기보고에 의존되어 측정되고 있다.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의 경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자기보고와 함께 또래보고, 교사관찰이 병행되어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심도있는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권자영(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태철(2002).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따른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하(1997). 중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수준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일, 김남희(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4(1), 75-89.
- 김수현(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순, 민문숙(1999). 여학생 비행의 실태와 학교의 대응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정만(2001).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1989). 청소년 비행의 개념과 측정. 청소년범죄연구, 7(1), 173-193.
-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 김경연(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5), 15-24.
- 라민오(2001). 충동성, 인터넷 중독경향과 청소년의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애란(2004).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1). 청소년의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응집력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선(2004). 청소년이 지각한 중요한 타인의 기대와 자기 존중감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희(2003). 청소년 비행의 개인특성, 가정 및 학교요인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유진(2003). 청소년의 생활환경이 비행에 미치는 상관연구, 생활환경과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영화(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족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적응 생활사건,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원과 부적응에 관한 종단연구. 아동학회지, 19(2), 35-48.
- 엄명용(2001).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가족내 부모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회지, 8, 147-176.
- 오미경(1997).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요인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2000).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학회지, 38(3), 81-106
- 유영완(2004).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원시 인문계, 실업계 여학생의 가정, 학교, 사회환경을 중심으로.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2003).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2(1), 1-13.
- 이현정(1997).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개인적 변인 및 음란매체 접촉도와 성비행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성택(2002).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변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9(1), 221-246.
- 임성택, 김혜진(2001).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청소년 개발원.
-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우식(1986). 청소년 문제, 그 실상과 대책. 서울: 삼성출판사.
- 정유미(1997).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운정(2000). 남자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개인 및 가족관련 변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옥한(1995).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법무연구(22), 법무연수원.
- 청소년 보호위원회(2003). 청소년 보호백서. 서울: 체육부(1996). 청소년 백서. 서울.
- 체육부(1999). 청소년 백서. 서울.
- 체육부(2002). 청소년 백서. 서울.
- 최상문(2003). 고등학생의 비행성향에 관한 연구,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주(1998).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아상(Self-Image)으로 본 아동의 심리, 사회 발달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rnes, H. I., & Olson, D. H. (1985). Parent -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a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Kaplan, H. B. (1978). Deviant behavior and self-enhance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 and adolescence, 1, 253-277.
- Kaplan, H. B. (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 Kaufman, J., & Zigler, E. (1987). Do abused children become abusive Par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186-192.
- KBS 뉴스(2005. 4. 26). 여학생의 문제행동 실태.
- Kinard, E. M. (1980). Emotional development in physically abus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2, 172-193.
- Loeber, R. (1982).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A review. *Child Development*, 53, 1431-1446
- Newcomb, M. D., & McGee, L. (1991). Influences of sensation seeking on general deviance and specific problem behavior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614-628.
- Owens, T. J. (1994). Two dimension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on adolescent probl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391-40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 Press.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 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1, 75-88.
- Zingraf, M. T., Leiter, J., Myers, K. A., & Johnsen, M. C. (1993). Child maltreatment and youthful problem behavior. *Criminalology*, 31(2), 173-202.
- Zuckerman, M., Esysenk, S., & Esysenk, H. J. (1978). Sensation seeking in england and merica; Cross-Cultural Age and Sex Comparis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1)1, 139-149.

(2005년 12월 22일 접수, 2006년 2월 13일 채택)